

화면으로 만나는 태백산
유아숲학교

숲의 농부,

다람이

-석탄길에서 꽃길까지,
만항재-



각시취



우리 친구들~안녕?
아까 만났던
태백산국립공원 천서경 해설사,
꽃밭침 선생님이에요~



벌개미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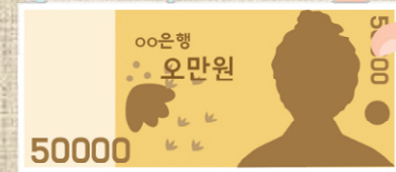
이번 시간에는
태백산국립공원의 만항재와 ‘다람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만항재에 와본 친구 있나요?





강원도 영월과 정선, 그리고 태백
세 지역에 걸쳐 있는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차로 올라올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자,
옛날에 석탄을 캐서 나르던 곳이었어요.





땅 속에서 오래된 식물이 굳어져 만들어진 ‘석탄’은
우리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편리함을 주었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자연은 망가지고 말았죠.



국립공원 제15회 사진공모전
범꼬리 - 이복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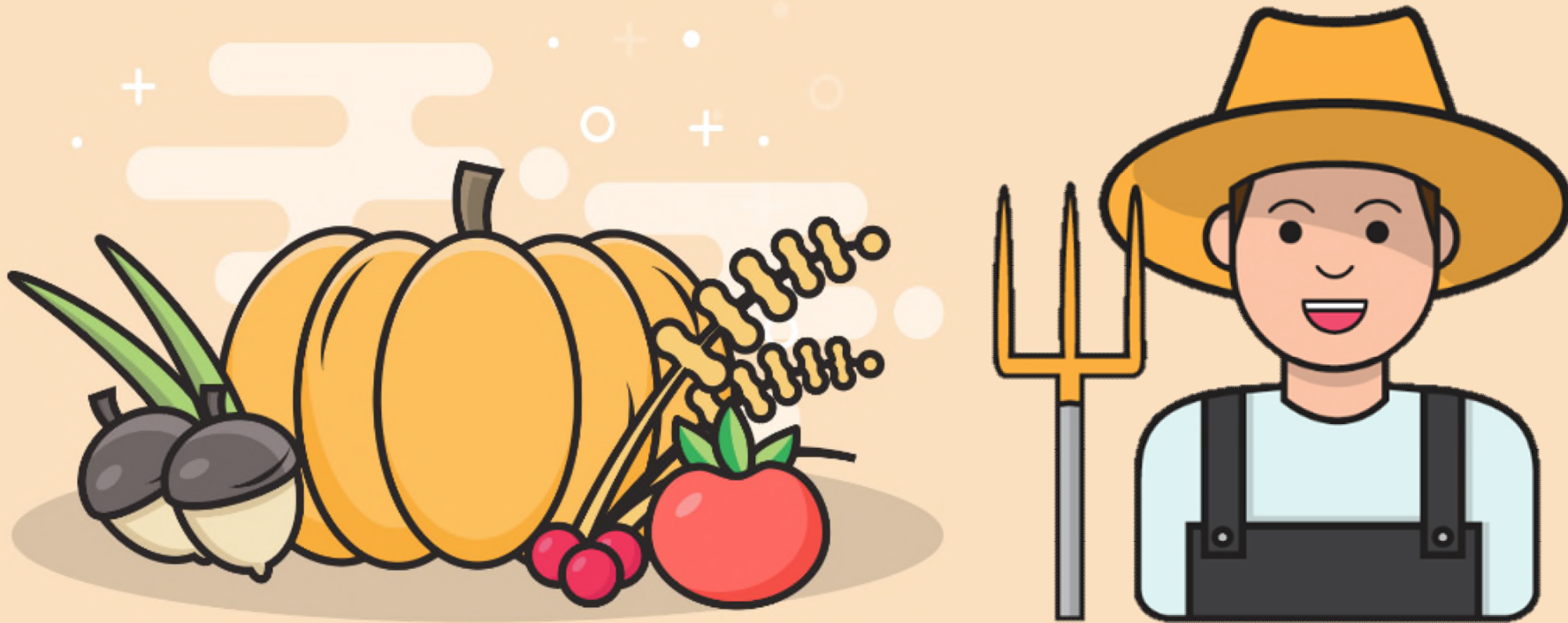


그래서 자연을 다시 건강하게 하기 위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곳에 나무를 심고
꽃을 키워서 '야생화 정원'으로 가꾸었어요.
아름다운 만항재에 놀러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다가오는 '10월 1일'은 우리나라 명절인 '추석'이에요.
봄부터 가꿔온 쌀, 과일 등을 거둬드리며, 돌아가신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가족들과 1년 동안 고생했음을 격려하는 날이죠.



숲에서도 ‘추수’를 하느라 바쁜 동물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친구인지 함께 ‘이야기 책’을 통해 알아 볼까요?



숲의 농부, 다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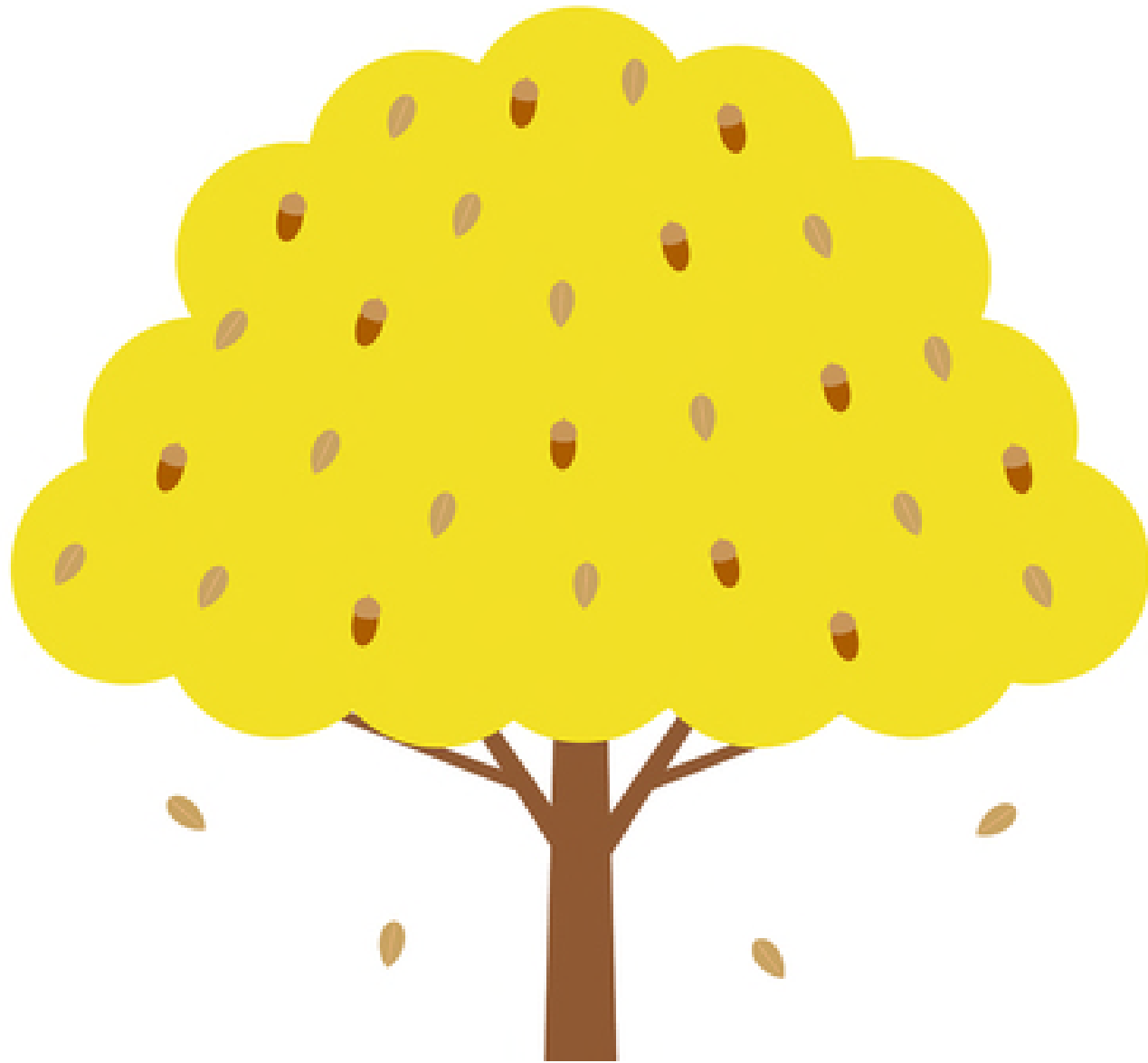
밥 먹는 곳

화장실



다람이 방







밥 먹는 곳

우와>_<
도토리,
많이 모았다!!!

화장실



다람이 방

이렇게 보여요!



친구들, 어때요?
다람쥐의 도토리 한 알이, 쌓이고 쌓여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되어 '숲'이 되었어요.
다람쥐처럼 새, 멧돼지와 같은 다른 동물도 열매를 먹고
배변을 하며 '씨앗을 심는 농부'랍니다.
오늘의 체험은 '자연 만화경 만들기'인데요.
바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만화경'이에요.
함께 만들어 볼까요?>_<



친구들,
모두모두 만화경 잘 만들었나요?
‘도토리 한 알’은 우리 사람에게겐 간식이나 장난감일지 몰라도
멧돼지, 다람쥐와 같은 동물친구들에겐 겨울을 버틸 ‘귀중한 양식’이에요.
그러니, 숲에 가서 도토리는 관찰하기만 하고 주워 오지 않기, 약속!



다양한 시각으로 자연을 보고,
우리 사람은 자연에게 무엇을 받고 있을까요?
또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풍요로운 가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길 바라요!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